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⑧ 운강석굴

황제 닮은 불상 불교문화의 원동력

석굴과 불교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북위라는 특이한 국가를 만나야 한다. 북위는 중국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북위가 화북(華北) 지역을 지배하던 시기 동안에는 수많은 석굴과 불교사원이 건립됐다. 이러한 활발한 불교문화의 업적 이면에는 북위시대의 독특한 시대상황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급격한 불교의 팽창 이면에는 이민족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출발한 북위 황실의 정통성 문제가 있다. 북위 황실은 불교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정통성의 문제를 불교를 통해서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불교수용을 통한 문화축적과 한족문화와의 결합, 그리고 새로운 북위문화를 창출해가고자 했다.


운강석굴 제 20굴. 당당한 체구의 불상은 담요오굴을 대표하는 불상이다. 운강석굴의 불상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우람한 불상이 당시 북위시대 불교의 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북위는 불교 석굴과 많은 연관이 있다. 북위의 석굴에 대한 애정은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돈황, 운강, 용문 등을 비롯한 수많은 석굴에서 화려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러한 북위 석굴 조성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운강석굴이다.

운강석굴의 원래 이름은 무주산 석굴로 당시에는 무주새 석굴이라고 했다. 운강석굴이 있는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내몽고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 중 하나다. 한나라 때부터 이 지역을 중요하게 여겨 무주새구(武周塞口)로 불렀다. 이 곳이 운강(雲岡)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명나라 때 군사 요새인 운강보(雲岡保)를 건설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석굴의 이름도 운강석굴로 바뀌었다.

운강석굴을 개착하게 된 과정은 담요(曇曜)라고 불리는 양주출신의 승려와 관련이 깊다.

북위가 건국된 이후로 북위 황실과 불교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북위는 건국 초기 승려를 통제하기 위해 승관(僧官)을 설치했다. 승려 통제를 국가가 주도해 실시한 것은 중국사회에 있어서 불교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불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와 불교의 밀접한 관계는 북위 삼대 황제인 태무제(太武帝)에 이르러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다. 이른바 '폐불(廢佛)'이라고 불리는 불교 탄압을 거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폐불 이후 북위 불교를 부흥시킨 인물이 바로 양주(涼州; 돈황일대) 출신의 승려인 담요다.

태무제가 죽자 태무제의 손자였던 문성제(文成帝)가 그 뒤를 이었다. 문성제는 즉위하던 해에 불교부흥의 조칙을 내리고 피폐해진 북위의 불교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 놓았다.

〈위서〉 '석로지(釋老志)'에는 북위불교 부흥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흥안 원년(興安 元年; 452)에 불교부흥의 조칙이 내려지자 곧바로 신하에게 명하여 문성제와 같은 신장의 석상을 만들게 했다. 석상 얼굴 위와 발 아래에는 각각 흑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문성제 신체의 아래위에 있는 검은 점과 일치하고 있었다", "흥광 원년(興光 元年; 454년) 가을에 칙명으로 오급대사(五級大寺; 오층탑을 쌓은 절) 안에 태조(太祖)이하 다섯 황제를 위해 석가모니불 입상 5구가 주조됐다. 이상의 높이는 일장육척으로 금이 2만 5천근이 사용됐다"는 기록이다.

폐불 이후 황제를 닮은 불상과 북위 황실의 역대 황제를 위한 불상을 조성한 점은 새로운 불교문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460년 북위불교의 대표자가 된 담요 스님은 북위의 모든 불교문화의 정수를 결집해 운강석굴을 개착한다. '석로지'에는 당시의 상황을 "담요는 황제에게 아뢰어, 수도 서쪽 무주새(武州塞)의 산 석벽을 개착하여 다섯 개의 굴을 여니, 각각 불상 1구씩을 새겼다. 높은 것은 70척이나 되고 다음은 60척이며 조각의 위대함은 일세에 으뜸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운강석굴의 최초 석굴인 '담요오굴'의 기사다.

문무왕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53 백담사의 가을

이태 전 시월 백담사. 어느 계절이든 새로운 계절은 도시보다 산사를 반걸음 정도 먼저 찾아온다. 가을이 완연했다. 떨어져 뒹구는 낙엽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해오고, 추녀를 떠난 풍경소리는 급하게 추녀로 되돌아왔다.

오세암까지 가는 사람, 봉정암까지 가는 사람, 설악산 꼭대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잠시 들러 제대로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죽기 전에 봉정암 가고 싶어 왔다는 백발의 할머니, 할머니 따라온 며느리, 며느리 따라온 아저씨. 모두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다시 낙엽이 떨어져 뒹굴고, 되돌아온 풍경소리가 또 풍경을 울렸다. 대답할 수 없는 물음들만 쌓여갔다. 그 가을이 다시 눈앞에 와 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5도 남방제상호설성등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남방세계의 한이 없는 부처님들이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믿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제15도는 제14도와 거의 같은 도상이나, 제14도와 같이 그림이 책의 체재로 인해 두 면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면에 다섯 부처님이 모두 표현되어 있어 완성도가 한결 높아 보인다. 또한 14도에서의 구름 문양은 중앙의 부처님을 향해 좌우에서 모아지는 형태이나 제15도의 구름문양은 좌에서 우로 향하는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동방세계의 부처님들과 마찬가지로 남방세계의 부처님들은 모두 약간 우측으로 향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도상은 9번째 목판 원판의 전반부 일부에서 9번째의 목판 원판 후반부 1/3까지 이어진다.

"사리불아, 남방세계에 있는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등 항하수의 제불이 각각 그 나라에서 광장설상(부처님 상호의 특징 중 하나로 길고 넓은 혀: 보통 사람이 삼생에 걸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의 혀는 코에 닿을 만큼 길어진다고 한다.)을 내시고,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어 성실한 말씀을 이르셨느니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舍利弗 南方世界 有日月燈佛名聞光佛大燄肩佛須彌燈佛無量精進佛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出廣長舌相 徧復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所護念經)

이 본문을 간추려보면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이익을 남방에 있는 여러 부처님들이 찬탄하고 그 공덕을 믿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리는 아미타부처님의 공덕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시 새겨 볼 필요가 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부처님은 대왕의 자리와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한 법장 스님으로 보살이 닦는 온갖 행을 닦아 중생을 제도하여 극락세계로 구원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이러한 대원으로 법장 스님은 부처님이 되셨다. 결국 부처님이 된 원동력은 중생을 행복의 세계인 극락세계로 구원해 주겠다는 간절하고 한결같은 마음인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공덕이요, 우리가 아미타부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5도 남방제상호설성등장엄(南東諸相好說成等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초판 22쇄의 스테디셀러!!



10,000원
A5 / 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구입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